

COVID-19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들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되새기며 믿음을 지키는 일이다(롬10:10).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현대교회의 난제인 신학종파나 교리, 현세적 믿음과 축복, 세속성, 인본주의에 얽매인 믿음이 아니라 진리인 성경대로의 정직한 믿음인 것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어느 교파, 교리, 신학을 따지지 않으시고 오로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곧 진리대로 믿고 살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실 것이다. 주님이 친히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 갈 것”이라고 하신 말씀(마7:21)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그대로 살아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이어야 한다.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정립되는 것이 중요하며, 삶의 우선순위(Priority)의 첫 번째도, 열 번째도 하나님이어야 하고, 비전의 목표도 현세적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마6:33), 하나님은 세상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다(수6:20).

믿음에 대하여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두 서신에서의 믿음은 한 줄기의 이야기이다. 만일 달리 본다면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말 것이다. 두 서신에서 말한 믿음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둘을 합쳐야 완전한 믿음의 개념과 그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한 당시 유대교의 시대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던 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므로(이신칭의) 구원은 율법의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기독교 교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었다(롬1:12,17,28).

반면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 곧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었다(창4:3-5, 마14:27, 막10:46-52 롬8:4-13, 12장, 약1:19-27, 2:1-26, 히11장). 그 당시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의 실천을 게을리하고 교리로만 받아 드려 삶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에 대하여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믿음의 삶, 곧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신앙의 형식화, 첫사랑의 식어짐, 세속화하는 현대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경종과도 같은 것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을 어떠한 삶으로 지켜냈고, 표출하였느냐인 것으로 계산하실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이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으로(요14:16,17) 세상의 것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구별되어 거룩한 삶(요일2:16,17),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벧후1:4)을 살게 되는데 여기에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수24:15). 이러한 삶이 율법과 다른 점은 율법은 삶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의례적으로, 타의적으로 마지못해서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고, 은혜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된 삶은 믿음 때문에 자의적으로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과 성품이 주의 것으로 바뀌어 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곧 믿음에 합당한 삶, 다시 말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변화게 됨을 말한다. 고로 두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한줄기의 믿음인 것이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 역점을 두었다고 하겠다(롬13:14). 그런데 믿음의 삶은 곧 예배적인 삶을 말한다(히13:7-9 15,16).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이다(창2:15, 요4:21-24, 롬12:1).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다.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삶이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천국을 간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갈라디아서 2장20절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으로 이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야보고서에서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약2:14,17,26)고 한 말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는 곧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산상수훈, 마7:21, 13:34, 고후13:5, 엡2:10, 히12:14, 약2:14, 17).

그러므로 주님께서 진정한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하나님(롬4:17)을 믿는 그 믿음이 진실된 삶으로 나타나므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벧전1:9). 이는 주안에 내가, 내안에 주의 말씀안에 거하여 포도나무에 접붙인 건강한 가지로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나타낸다(요15:5). 이와 같이 믿음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곧 구원에 이르는 삶으로 우리는 우리자신을 매일 점검하며 성숙해져야 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산 믿음이나 아니냐의 기준은 믿음에 부합된 삶을 살았느냐에 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놓쳐서는 아니 될 매우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인 저 천성,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야만 하는 절박함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파나마 Yaviza에서 10월 마지막 날에 선교 소식을 전합니다. 전 세계가 다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곳 인디안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파나마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이제 7개월을 넘어가면서 하루 확진자가 800-600명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0월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거의 모든 규제를 풀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나 다행히 확진자수가 늘어나지 않고 현재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개척한 7개 교회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후방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로 2개 교회는 한번도 교회 문을 닫지 않고 예배를 드려왔고 10월에 모든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2개 교회는 철저한 방역과 손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온도재기등으로 정부의 허가하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여러 교회와 개인적으로 보내 준 마스크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개월간 7개 교회에서 선교사와 한가정이 확진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가정도 12명이 한 집에서 살아 왔는데 이를 계기로 정부가 기존 판자집을 헐고 이들을 위해 연립주택식으로 3채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은 하나님의 기적교회 창립3주년을 맞아 성도들과 함께 케익을 자르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폴로목사를 리더로 세웠고, 믿음으로 판자건물을 헐고 성도들이 기초를 닦고, 기도중 알지도 못하는 한국교회에서 물질을 보내와 교회건물을 세운 교회입니다. 현재는 늘어나는 성도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어린이 급식을 위한 식당 증축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예배를 못 드리고 두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돌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침례를 베풀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선교사가 건강문제로 못 갈 때는 폴로목사와 전도팀이 함께하여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제는 폴로목사등 현지 인디안교회 리더들과 전도팀이 선교사 몫을 잘 담당하고 있습니다. 2년째 교회 건물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La Palmera지역 개척교회는 8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성도들이 모여 교회 건물이 세워질 부지에 있는 목조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곳에 교회 건물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8월 마지막주부터 9월까지 은혜한인교회 선교부 안 영식목사님께서 인터넷으로 느헤미야강의를 리더들을 위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중남미 GMI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모든 국가에서 함께 강의를 기도하며 찬양하며 강의를 듣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2일에 걸쳐 6주간 진행되었고 먼곳에서 못 온 리더들은 10월에 2박3일로 함께 모여 녹음강의로 마쳤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강의인데도 많은 은혜 속에 마치고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리더들을 세워 놓았지만 열심만 있는 이들에게 늘 성경지식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여러 여건상 어려움에 기도만 해 왔는데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인터넷으로 이들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일년에 몇 차례씩 인터넷강의가 이루어 진다면 이곳 리더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0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규제가 풀리면서 그 동안 중단되었던 5개 인디안 교회에서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정글 인디안교회들을 돌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개월간 중단되었던 예배를 시작하니 코로나19의 두려움으로 많은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코로나19로 세상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영혼 구원의 기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월 23일에 인디안마을에 제 3차 식량 지원을 하였습니다. 엠베라인디안들이 사는 Pijibasal마을에 전도팀이 전도를 다녀와서 전하기를,인디안마을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식량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곳에 조그만 교회가 있고 2년전에 전기가 없는 마을이라 교회에도 밤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태양광전기를 설치해 준 마을입니다. 배로 한 시간을 가고 다시 추력으로 한 시간을 가야 하는 오지마을인데 중간에 폭우로 길이 끊겨 다시 건너편에서 추력을 찾아 구해 식량들을 옮기고 해서 마을까지 도착해 식량을 교회 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기도하고 전달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앞으로 선교사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참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파나마김재한선교사--



할렐루야!, 주위를 둘러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사건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11월입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시간이 더 날아가는 듯 하네요. 코로나 속에서도 계절은 바뀌고 바뀌어 한국은 추운계절이 다가오고 케냐는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3월 이후 전 세계가 봉쇄되고 해제되면서 이제는 나라마다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코로나와 함께 적응하여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마지막 코스를 달리는 마라톤 주자의 심정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를 위해 늘 기도와 응원으로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케냐는 지난 3월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매일 천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무료 검사를 거부하기도 하고, 거리유지나 마스크 착용 등의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킬리피 타운에는 토요일 마다 큰 장이 서는데 몇 달간 철수되었다가 몇 주 전부터 다시 수백명의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복적입니다. 학교는 4, 8, 12학년과 대학교 졸업반만 재개하였는데 교사나 학생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다시 닫을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매달 숙제를 내 주었습니다. 이제는 내년 1월 새학기에 학교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개학이 늦어질수록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도 적어지고, 막상 교육부에서 학교를 재개하라고 하여도 재정적인 문제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놀거나 농사를 짓거나 또는 돈을 벌기 위해 나가서 장사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뉴스에서 나왔듯이 수천명의 임신한 청소년들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학교에 돌아가는 것은 더욱 불투명한 현실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 되고 잘 교육을 받아서 자라나야 할 텐데 큰 기도제목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마음껏 배우고 신나게 뛰놀며 배불리 먹는 그날이 다시 오기를 기도합니다. 신학교 또한 학생들이 케냐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내년에는 재개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케냐항공식원지혜선교사--

마라파 카비보니 은혜교회



보이 밤바레니 은혜교회 건축



새롭게 건축될 마라파 바리초 은혜교회



코로나의 영향으로 교회 건물 안에서 했던 사역들이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교 건물에서 어떤 활동을 하다가 감염자가 생기면, 건물을 완전히 폐쇄하고 책임자에게 큰 벌금을 부과합니다. 현지인이 사역하는 교회보다 더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선교사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저희 미르교회에서도 4월부터 예배와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갖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설교문을 복사해서 직접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있는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건물 외에는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9월까지의 연해주에서 100명/일 미만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200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10일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검사 받은 사람은 그 동안 그냥 일상생활을 합니다. 학교에서 감염자가 생기면, 해당하는 교실의 학생들만 등교 중단하는 정도입니다. 방역 체계가 미흡한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과 같이 생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동안 저의 사역은 줄어들고, 아내 악산나의 사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아침(화~토, 8~9:30) 성경공부(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부 예배는 토요일 오후에 드리는데, 9월까지의 번역한 설교를 카톡이나 WhatsApp으로 보내고 채팅으로 나눔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모여서 이전처럼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전송을 하고 있는데, 통역하는 청년이 타주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고 있어서 소리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휴대폰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가 하울링이 생깁니다). 악산나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마태는 9월부터 초등학교, 마가는 유치원, 안나는 집에만 있습니다). 아내는 이전에는 예배 통역만 했는데, 이제는 목사님과 저의 설교를 번역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목사님 대신 교회 대표자로 되어 있어서 요즘 행정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 건물이어서 소방법과 치안법에 맞게 수리를 하고 서류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을 돌아다니며 담당자들을 만나 서류를 점검 받고 수정하기를 3달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사모님과 여성 리더들을 중심으로 구제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르교회에는 연로하신 어른들만 사는 가정이 30% 이상이어서 처음에는 이분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고 필요한 식재료를 사서 토요일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일을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생기면서 그들에게도 나눔이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서 구제 현금이 줄어들어 식재료만 사서 나누다가 이것도 중단해야 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한인교회의 행복나눔으로 귀한 구제현금을 받게 되어 다시 반찬과 식재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나눔을 구제사역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여러 루트를 통하여 계속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마르지 않는 생명수 같이 주님의 사랑을 담아 지금도 구제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슬라바 보구(하나님께 영광)! 연로하신 어른들이 어려운 중에도 연금과 용돈을 모아서 구제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전달되어 과부의 두 림돈과 같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나눔으로 미르교회를 섬겨주신 은혜한인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8월 말에 10%는 재정이 어려운 선교사님을 위해 헌금, 90%는 미르교회 구제헌금)

저희 가정이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악산나가 2달 전에 몸이 너무 힘들고 머리와 허리, 위가 계속 아파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 위에는 염증, 목과 허리 디스크 증상,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고 백혈구 모양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어금니가 2개가 부서지고 잇몸이 부었습니다. 몇 주 후에는 소변에서 피가 나와서 또 검사를 받았는데, 신장에 작은 돌들이 많이 있고 방광 노후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주에는 심한 현기증이 생겼고, 혈압이 자주 올라갑니다. 아이들 3명 돌보는 것도 힘든데, 저까지 아내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앞으로 러시아에서 하고 싶은 사역은 선교사 훈련원에서부터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방과후 교실. 방과후 교실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을 위한 선교사 훈련원. 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KCCC의 대학생 선교훈련원과 GMI 선교사 훈련원 때입니다. 이 두 색깔의 선교훈련을 접목시켜 러시아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넓은 러시아 중에서도 우수리스크를 위해, 미르교회를 위해, 저희 가정을 위해, 선교 비전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기도제목 중에 악산나의 구속사성경조감 번역사역은 반정도로 마무리했고, 6월에 다른 번역자가 이어 받았습니다.

--러시아 우수리스크 장석희 악산나 선교사 --

